

화제한어 ‘도서관’ 명칭의 변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and Issue of the Japanese-Chinese Word ‘Library’

윤 희 윤 (Hee-Yoon Yoon)*

목 차

- | | |
|------------------------|------------------------|
| 1. 서론 | 3. 중국에서 도서관 명칭의 변용과 쟁점 |
| 2. 일본에서 도서관 명칭의 변용과 쟁점 | 4. 요약 및 결론 |

초 록

도서관(圖書館)이란 말은 일본 메이지 중기에 서양의 library와 bibliothek를 번역한 화제한어다. 이를 한자문화권의 중국(圖書館), 대만(圖書館), 한국(도서관), 베트남(Dồ thư quán)이 수용하였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에서는 언제, 누가 서양 도서관을 최초로 소개하였는가. 일본의 중론은 계몽사상가 후쿠자와(福澤諭吉)의 『西洋事情, 1866』이고, 중국은 개혁사상가 양계초(梁啓超)의 『時務報, 1896년』 기사를 최초로 지목하는 견해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양국에 서양 도서관을 소개한 근대 사전, 저서, 역서, 논문, 신문기사 등을 중심으로 ‘도서관’이란 명칭이 등장한 시기와 인물을 추적하고 논증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모도기(本木正榮)의 『諸厄利亞語林大成, 1814』를 비롯한 여러 견문기 및 사전에서 다양한 용어로 서양 도서관을 기술하였기 때문에 1866년 후쿠자와의 소개설은 오류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류정담(劉正澥)의 『漢語外來詞詞典, 1884』에 도서관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므로 1896년 양계초 도입설은 사실이 아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도서관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시기, 1901년 일본홍도회 부산지회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도서관 명칭에 대한 추적과 논증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word library(圖書館) is a Japanese translation of the Western library or Bibliothek in the mid-Meiji period. This word has been accepted in Chinese(圖書館), Taiwan(圖書館), Korea(도서관), and Vietnam(Dồ thư quán), which are Chinese-speaking countries. If so, when and who first introduced the term library to Japan and China? In Japan, the enlightenment thinker Fukuzawa's 『Seiyō Jijō, 1866』 is regarded as the first document to introduce the Western library, and in China, the article published in 『Qing Yi Bao, 1896』 by the reformed thinker Liang Qichao referred to as the first example. Therefore, this study traced and demonstrated the time and person in which the word library appeared, focusing on modern dictionaries, books, translations, papers, and newspaper articles that were introduced in both countries. As a result, the theory of the introduction to Fukuzawa in 1866 is wrong because Western libraries are described in various terms in many diaries and dictionaries, including Motoki's 『An English Japanese Dictionary of the Spoken Language, 1814』. Also, in China, the theory of introduction of Liang Qichao in 1896 is not true because the term library first appeared in Ryu Jeong-dam's 『A Dictionary of Loan Words and Hybrid Words in Chinese, 1884』. In the same context, it is necessary to trace and argue the history of the first use of the term library in Korea and the name of the first library in Korea established by the Busan Branch of the Japan Hongdo Association in 1901.

키워드: 화제한어, 도서관 명칭, 비블리오테카, 문고, 장서루, 서적관, 도서관 변용

Japanese-Chinese Word(Wasei-Kango), Name of the library, Bibliothek, Bunko, Collection house, Bookstore, Library transformation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ISNI 0000 0000 5076 3031)

논문접수일자: 2023년 1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2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2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23-44,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023>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목적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는 역사적 증거다. 기록에도 고대문명에서 신화, 왕조사, 제왕의 칙적, 전쟁사, 행정문서, 경제활동, 학문탐구, 대중의 삶과 문화 등을 집적한 공간 내지 시설의 명칭은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등이 혼용되는 가운데 전공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정도로 입장 차가 크다.

가령 시리아 에블라 왕국의 경우, 기록학계는 점토판 공문서가 많다는 이유로 왕립 기록 보존소로 간주하는 반면 도서관계는 왕립도서관으로 인식한다. 신아시리아 제국의 니네베도서관(또는 아슈르바니팔 왕립도서관)도 기록학계 일부에서는 왕립기록관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에서 대학, 박물관, 도서관 기능을 겸한 부루치움의 성격에 대한 증론은 왕립도서관이다. 당시 명칭은 ‘λεξάνδρεια βιβλιοθήκη’이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어 βιβλιοθήκη가 도서관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라틴어 bibliotheca(또는 bybliothecca)로 계승되었다. 그 변용이 독일어 bibliothek, 프랑스어 bibliothèque, 이탈리아어 및 스페인어 biblioteca, 네덜란드어 bibliotheek, 러시아어 библиотéка(biblioteka) 등이다. 반면에 영미에서 범용되는 library의 어원은 라틴어 librarium(책 상자)이며, 14세기 앵글로 프랑스어 librairie 또는 고대 프랑스어 librairie로 변용된 후 지구촌 도서관 명칭으로 범용되고 있다.

한편, 고대 동양에서 도서관은 왕조를 달리

하며 고유명사에 부(府), 실(室), 각(閣), 전(殿), 당(堂), 장(藏), 루(樓), 고(庫), 원(院) 등을 후치·호칭하였다. 그러다가 메이지 정부의 서양 시찰단이 선진 문물과 제도를 번역·소개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bibliotheca와 영미의 library를 한자어 ‘지도(地圖) 또는 도판(圖版)과 서적(書籍)을 조합하고 관(館)을 부기한 화제한어(和製漢語)인 도서관(圖書館)을 조어하였고 한자문화권인 중국, 대만, 한국, 베트남에 이입되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화제한어는 ‘일본에서 중국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한자 어휘’를 말한다. 그렇다면 서양 도서관을 일본에 최초로 소개한 인물은 누구인가, 도서관이란 말은 누가 만들었는가, 중국에는 언제 소개되었고 누가 이입하였는가. 일본에서는 근대 계몽사상가 겸 저술가인 후쿠자와(福澤諭吉)를, 중국에서는 개혁사상가 겸 교육자 양계초(梁啓超)를 지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논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개화기 일본 및 중국의 여러 문헌에 서양 도서관이 번역·소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국의 사전, 저서, 번역서, 논문, 신문기사, 홈페이지,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역사적 사실처럼 명시된 ‘도서관’이란 용어의 최초 소개 및 도입설을 논증하고 반론을 제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양국 도서관의 전사(前史)에 대한 추적을 전제로 도서관이란 명칭이 언제 등장하였고 어디에 소개되었는지를 논증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리고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범위는 고대에서 근대 개화기까지로 한정한다. 중국은 주왕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일본은 고대국가가 성립된 7세기 아스카 시대(飛鳥時代)부터 20세기 초반까지다.

둘째, 연구방법은 근대 문헌조사를 전제로 도서관이란 용어의 변용에 대한 시대적 선후관계 분석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고서, 근대 원전 자료, 신문자료, 연보, 법령 등 사료, 학술논저, 디지털 파일, 홈페이지와 사이트, 인터넷 자료를 최대한 추적하고 원전 중심의 인용 증거 및 연계성,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그럼에도 자료입수 제약, 원전 및 사료 부족으로 인한 문헌조사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사료 추적 및 고증을 전제로 수정·보완을 위한 후속연구가 불가피하다.

1.3 선행연구 개관

일본과 중국에서 도서관 약사를 논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양국에서 도서관 명칭 이전에 어떤 용어가 사용되었고 변용되어 왔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한 연구는 극소수이고 도서관 명칭을 이입한 주역과 대중화 시점에 대한 견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 다케야마시(竹林熊彦, 1943, 39-43)는 후쿠자와가 구미의 주요 국립도서관(영국, 프랑스, 러시아), 국립도서관과 공중도서관의 구분, 납본제도, 도서관 조직기구 등을 일본에 처음 소개한 인물로 기술하였다. 이어 우라타와 오가와(裏田武夫·小川剛, 1965, 153)는 『서양사정』(西洋事情, 초편)이 근대 서양 도서관을 일본에 최초로 소개된 책인데, 일본인 안목으로 유럽 문물을 수용한 것으로 사회전반

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메이지 정부의 새로운 정령에도 반영되었다는 논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우라(三浦太郎, 1998, 393-401)는 대다수 도서관사 연구가 후쿠자와 『서양사정』을 구미 도서관 소개의 효시로 간주하여 고착되어 왔으나 그 전에 유입된 대역사전과 세계지리에 등장하며, 서양 도서관을 서적관으로 호칭한 최초 인물은 1860년 미사절단으로 참가한 모리타(森田太郎)이고, 1872년 이치카와(市川清流) 건의로 문부성서적관이 설립된데 이어 1880년 7월 동경도서관으로 개칭됨으로써 도서관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우, 장려화(張麗華, 2009, 47-69)는 지금까지 도서관이란 말이 최초로 등장한 중국 기록은 고조(古城貞吉)가 『시무보』(時務報) 제6권(1896년)에 번역·게재한 ‘古巴島述略’(쿠바섬 약사)이라는 입장이 중론인 가운데 양계초 조어설과 통예학당도서관(通藝學堂圖書館) 시초설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1887-1888년 일본을 시찰한 부운룡(傅云龍)의 『유역도경서기』(游歷圖經余記)에 일본·구미 도서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초기 용례는 중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1890년대 후반까지 중국어로 정착되지 않았으며, 중국인에게 널리 인지된 후 ‘주정대학당장정’(奏定大學堂章程)에 표기됨으로써 20세기 초반 정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고엽칭(顧焯青, 2019, 110)은 19세기 중반 일본 문헌에 소개된 서양 도서관의 명칭을 추적한 후 네덜란드학자 미츠클리(箕作阮甫)가 1851년 발간한 『팔굉통지』(八紘通誌, 初編)에서 대영박물관도서관 및 옥스퍼드대학 보드레이안도서관을 공공서고로 번역·소개한 것이 최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서남원(2019, 140)은 근대 서양인들이 중국에 세운 도서관의 영문 명칭인 library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장서루(藏書樓)며, 상해 천주당장서루(天主堂藏書樓)에 처음 사용되었고, 무술변법(戊戌變法)¹⁾을 전후로 유행하다가 1900년 이후 도서관으로 대체되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일본과 중국에 도서관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 개화기 전에 번역·소개된 각종 문헌에서의 다양한 명칭, 서양 도서관을 최초로 소개한 인물, 도서관 명칭이 보편화된 시기 등에 대한 입장과 논거에 일관성이 없다. 심지어 필자의 사전 조사에서는 모든 선행연구에 제시된 문헌보다 앞서 서양 도서관을 소개한 자료도 확인되었다.

2. 일본에서 도서관 명칭의 변용과 쟁점

2.1 도서관 발전과 명칭 변용

2.1.1 고대의 도서료(圖書寮)와 예정(芸亭)

일본은 고분시대로 지칭되는 3-7세기 기내(畿内), 구주(九州), 북관동(北關東), 산양(山陽), 산음(山陰) 등에서 정치집단 규합 및 왕권 형성을 통해 고대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합의도 없다.

고대 일본에서 도서관의 출현은 불교 전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최초 저작물은 7세기

초반 아스카 시대의 황족이자 정치가 쇼토쿠태자(聖德太子)가 승만경(勝鬘經), 유마경(維摩經), 법화경(法華經)에 주석을 붙인 『삼경의소』(三經義疏)이며, 나라(奈良)의 성덕종 총본산인 범룡사 내 몽전(夢殿)에 보존하였다. 그러나 과거 왕조나 개인이 기록물을 집적한 역사적 증거가 없고, 종이도 610년 고구려 승려 화가 담징이 일본에 전파하였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도서관 전사(前史)는 대보율령(大宝律令) 제정 이후로 간주해야 한다.

그 최초 명칭은 중무성(中務省, 현 궁내청) 소속 도서료(圖書寮)다. 701년 제정된 『대보율령』(大宝律令)에 따라 조정의 도서, 문서, 불상 및 문구류를 제작·관리·수장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문서관 겸 도서관이다. 대보율령 후 조지소(造紙所)가 부설되어 종이를 제작하다가 794년 평안경(平安京) 천도와 함께 대내리(大內裏) 밖 지옥천 근처에 분실인 지옥원(紙屋院)을 설치하였다. 종이 제작에는 물 공급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森本正和, 1999, 66-73). 메이지 시대에는 교토로 이송되어 자료유형별로 분산·보존하다가 관리문제로 천황이 학문하던 시강국(侍講局)에 군집하였고, 1884년 궁내성도서료에 인계되었다. 그 후 귀족·무가·학자·구막부의 자료를 모아 장서를 크게 확충하였다. 1946년 제릉료(諸陵寮) 및 어가소(御歌所)의 사무를 인수한 후 1949년 서릉부(書陵部)로 개칭하였다(杉本まゆ子, 2015, 164). 그 때까지 도서료라는 명칭이 유지되었다.

1) 1868-1869년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 세력과 교토어소(京都御所)에 정치권력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세력 간의 내전으로 막부가 폐하고 일본 제국이 탄생하였다.

그런가 하면 나라 말기인 770-780년에는 예정(芸亭, 이칭 芸亭院)이 건립되었다. 헤이안(平安) 초기의 칙찬사서 『속일본기』(續日本紀)에 따르면 귀족 겸 문인 이소노카미노(石上宅嗣)가 평성경(平城京, 현 나라시) 사저를 개축하여 아축사(阿閼寺, 현 市立一條高等學校 부지 내)를 건립하고, 남동쪽 끝 외전서고 중심의 구역을 예정으로 지칭하고 특히 불전과 유선 등 한적을 수집·보존하면서 학자를 비롯한 일반에 공개하였다. 일본 최고의 사립도서관인 동시에 호학도의 자유로운 열람을 허용한 공개도서관이자 문화시설이었다(總合仏教大辭典編集委員會, 1988, 98; 土佐秀里, 2019, 29). 예정은 개설 초기부터 수도 평성경(平城京, 현 나라시 서부)의 학문연구 거점이었고, 9세기 초까지 존속하다가 781년 이소노카미노 사망과 794년 교토 천도 후 쇠퇴하였다. 현재는 학교 동쪽에 전승지 표식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1.2 중세의 문고와 대본옥(貸本屋)

일본에서 중세의 시대적 범위는 1185년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 성립에서 1573년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 사망까지 약 400년이다. 더 넓히면 헤이안 시대(794-1185년)를 포함한 700년이고, 심지어 에도(江戸, 1603-1867년) 시대까지 확장하기도 한다. 다만, 정치사적으로는 무

가정권(武家政權)이 지배하던 시대다.

이 시기에 등장한 명칭은 문고다. 서고를 의미하는 '후미'(ふみ, 文)와 '쿠라'(くら, 庫)를 조합한 화제한어(和製漢語)²⁾로 원래 서고를 의미하였으나, 후에 황실·귀족·무가·문인 등의 저택이나 시설, 사찰 외전에 수장된 장서 자체 및 건물로 확대되었다. 최초 궁정문고는 816년사가천황(嵯峨天皇)이 고전적, 고문서, 연중행사 관련 도구류를 보존한 교토 중경구(中京區)의 냉천원(冷泉院)³⁾이다. 귀족·무가 등의 개인문고는 귀족 겸 정치인 와게노(和氣廣世, 헤이안 초기)의 홍문원(弘文院), 귀족 겸 학자 스가와라노(菅原道眞)의 홍매전(紅梅殿), 한학자 오에노(大江匡房)가 교토 자택에 설치한 고케문고(江家文庫), 대신 후지와라노(藤原賴長)의 아야쿠사(文倉), 북조씨(北條氏) 일족이 요코야마 저택 내에 문서·기록을 보존한 현존 최고의 무가문고인 가나자와문고(金澤文庫), 에도막부 도쿠가와(徳川家康)가 성내에 설치한 모미자마문고(紅葉山文庫, 御文庫의 후신, 내각문고의 전신), 그리고 각지 번(藩)⁴⁾이 설립한 문고가 대표적이다. 그 가운데 모미자마문고는 『원치증보어서적목록』(元治増補御書籍目録)에 따르면 장서가 119,500점(한적 65%)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였다. 1818년 후쿠오카 대번을 관할하던 키시다(岸田文平) 지사와 하카타정(博多町) 주민이 기증한

2) 중국 한자어를 번역·조어한 한역어휘의 일종이다. 한자어 조어법(어휘, 어법, 문법)을 기반으로 일본어 특유한 요소를 결합한 신조어로, 특히 메이지 유신 이래 서유럽에서 유래한 개념을 표현하거나 신문물과 개념을 한자어로 번역한 용어가 많다. 과학, 철학, 우편 등 새로운 한자어와 자유, 관념, 복지, 도서관 등 고대 중국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거나 조합한 한자어로 나눌 수 있다.

3) 퇴임한 천황 거처 및 도서를 수장한 곳으로 사가천황 때는 냉연원(冷然院)이었으나, 화제(875년, 949년)로 소실되자 재건한 후 '연'이 연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냉천원'으로 개칭하였다.

4) 에도시대 1만석 이상의 영도를 보유한 봉건영주인 다이묘(大名)가 지배하던 영역을 말한다.

도서로 구시다신사 부지 내 앵운관(櫻雲館)에 설치된 구시다문고(櫛田文庫)는 대중에게 개방한 최초의 서민문고인 동시에 마을도서관이었다(達也伊東, 2015, 12-18). 1831년 에도시대 소송을 대행하던 아오야기(靑柳文藏)가 셴다이의학관에 기증한 서적 2,885부(9,937권)로 개설한 아오야기문고(靑柳文庫)는 메이지 유신 때까지 존속하다가 무신변법 후의 혼란 속에서 산실되었고 1874년 미야기사범학교(宮城師範學校)가 개설될 때 일부 장서가 인계되어 1881년 개설된 미야기서적관(宮城書籍館)으로 승계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야기현도서관(宮城縣圖書館) 내에 아오야기문고(459부, 3,339책)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찰 문고로는 불전과 한적을 보존한 교토의 법계사(法界寺)를 비롯하여 고산사(高山寺)와 동복사(東福寺), 남선사(南禪寺), 지적원(智積院), 나고야 신복사(眞福寺)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도서대여점, 유료 대출도서관, 마을 도서관의 성격을 함축한 대본옥(貸本屋)은 명화(明和, 1764-1772년)·안영(安永, 1772-1781년)을 전후로 폐사소설(稗史小説)⁵⁾이 등장한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竹林熊彦, 1943, 76). 에도시대 성행한 대본옥은 도시중심의 경제성장, 서양 출판기술 수용에 따른 간행물 및 사본 증가, 상업적 작가 출현, 대중 독자층 증가가 배경이자 동인이다. 그 유형은 도시 내 대본옥, 도시 유곽(遊廓)⁶⁾ 대본옥, 가부키(歌舞伎)나 조루리(淨瑠璃) 등 공연무대 중심의 대본옥으로

대별할 수 있다(長友千代治, 2002, 115-133). 초기에는 교토, 에도, 오사카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세기 초 에도에는 대본옥 조합이 12개 있었고 가입자수가 656명이었으며, 오사카에서도 300여명이 대본옥을 운영하였다(石川了, 1983, 211; 今田洋三, 2009, 192-193). 메이지 시대는 더욱 성행한 가운데 학술서·참고서 중심의 대본옥도 등장하였다. 19세기 말 도쿄에는 이로하야대본옥(いろは屋貸本店), 공익대본사(共益貸本社), 홍문관(弘文館), 동경대본사(東京貸本社), 요시다대본점(吉田貸本店屋), 이시가키대본점(石垣貸本店), 도쿄대출도서관(東京貸出図書館) 등 대형 건물에 도서관기능을 수행하는 신형 대본옥이 출현하였다. 그 대부분은 후에 공공도서관으로 발전하거나 대체되었다.

2.1.3 메이지 시대의 서적관과 집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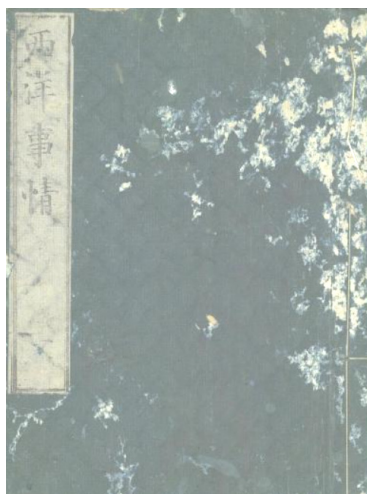
1868년 메이지 정부가 출범한 후 근대적 개혁인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868-1889년)이 전방위로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문고도 서적관, 집서원, 도서실 등을 거쳐 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이를 주도한 후쿠자와는 에도막부의 명에 따라 1860년 미국을 방문하고, 1861년 유럽사절단 통역원으로 참여한 후 1866년 『서양사정』 초판 3책을, 1867년 다시 미국 방문 후 1868년 외편 3책과 1870년 2편 4책을 간행하였다. 총 10책에 수록된 내용은 정치, 조세, 국채, 지폐, 회사, 외교, 군사, 과학기술, 학교, 도서관,

5) 원래 중국에서 패관(임금이 민간 및 거리의 소문을 기록하게 한 벼슬명)이 민간기록을 모은 역사서 또한 소설로서 패관소설(稗官小説), 패관기서(稗官奇書) 등과도 혼용되었다.

6) 에도시대 성매매 업소로, 관청 허가로 매음하던 공창(집장촌)을 말한다. 도쿄 요시와라로유곽(吉原遊廓), 교토 시마바라유곽(島原遊廓), 오사카 신마치유곽(新町遊廓)이 유명하였다.

신문, 문고, 병원, 박물관, 증기기관, 통신기계, 가스 등이다. 초판 제1권에서 '문고'(文庫)라는 제하로 유럽 도서관(ビブリアテー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福澤諭吉, 1866, 38-39;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2, 39-40).

서양 제국의 도부(都府)에는 문고가 있다. 『비브리오테키』라 한다. 일용 서적·도화에서 고서·진서에 이르기까지 만국의 모든 책이 갖추어져 있고 대중은 방문하여 의지대로 독서할 수 있다. 다만, 매일 서고 내에서 독서할 수 있어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런던(龍動)의 문고에는 80만권이 있다. 피터스부르크(特堡)의 문고에는 90만권, 파리(巴理斯)의 문고는 150만권이 있다. 프랑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파리문고의 책을 일렬로 놓으면 길이가 7리에 달한다. 문고는 정부에 속해 있고, 국가 전체로 보면 일부는 대중에게 속해 있다. 외국서는 구입하고, 자국에서 새로 출판된 도서는 출판자가 1부를 문고에 납본한다.



〈그림 1〉 「西洋事情」 표지

이에 주목한 이치카와(市川清流)는 1872년 유럽을 방문한 후 제출한 '서적원설립건백서'(書籍院設立建白書)에서 박물관에 서적원을 병설하도록 건의하였다. 동년 태정관의 문부대승(文部大丞) 마치다(町田久成)는 문부성의 문부경(文部卿, 장관) 다카도(大木喬任)에게 '박물관서적원건설안'(博物館書籍館建設案)를 제출하였고, 문부성박물관은 '원'을 '관'으로 수정한 후 1790년 설립된 에도막무 직할의 교학기관인 창평횡(昌平黉, 또는 昌平坂學問所)을 동년 8월 1일 유시마성당(湯島聖堂) 구 대학강당으로 옮겨 최초 관립 도서관인 '서적관'을 개관하였다. 당시 규모는 동서 약 18m, 남북 14.4m에 달했고, 2층에 열람실이 설치되었으며, 장서는 약 13,000종(13만 책)을 넘었다.

1873년 3월 박물관이 태정관박람회사무국 소속으로 바뀌자 율령제 하에서 사법·행정·입법을 관장하던 최고 기관 태정관과 문부성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 마치다는 박물관과 서적관의 일체화를, 다나카(田中 不二麻呂)는 서적관을 학교교육 보완기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74년 7월 7일 서적관은 유시마성당에서 아사쿠사(淺草)의 구 에도막부미창적지(江戸幕府米倉跡地)로 이전하여 아사쿠사문고(淺草文庫)로 호칭하였고, 1875년 5월 6일 문부성 소관의 동경서적관(東京書籍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876년부터 격심했던 농민봉기와 사족반란(士族反亂)에 대응하여 정부가 비용절감 및 기구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877년 1월 11일 교부성(教部省) 및 경시청, 18일 태정관정원(太政官正院)이 폐지된데 이어 19일 동경서적관과 박물관도 폐지되었으며(伊東達也, 2013, 139). 1878년 동경

서적관 관리가 동경부로 이관되어 유시마성당에서 동경부서적관(東京府書籍館)으로 재개관하는 등 술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교토부는 무사 겸 교육자로서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를 창설한 후쿠자와, 관료 겸 정치가 마사무라(榎村正直) 등의 구상에 따라 1872년 9월 교토(현 중경우편국 부근)에 최초의 유료 공공도서관인 '경도집서원'(京都集書院)을 건립하고 익년 5월 개관하였다. 민간이 경영한 집서원은 서양식 2층의 연면적 500평에 서고와 열람실, 사무실을 두었다. 이용료는 1회당 1전(錢), 5리(裡)였다. 그러나 일서 중심의 낡은 장서, 교토부의 지원 축소와 재정난, 핵심인물 다이고(大黒屋) 사망, 지지하던 인물들의 일선 후퇴 등으로 인해 1882년 폐쇄되었다가 1898년 경도부립도서관으로 재개관하였다.

2.2 도서관 명칭의 등장과 쟁점

도서관은 영미 library와 유럽 bibliothek을 번역·조여한 화제한어다. 언제 누가 만들었고,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여러 학술적 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도서관사 문헌에는 1866년 후쿠자와가 『서양사정』에서 대영박물관도서관을 소개한 점을 들어 구미 도서관의 개념을 일본에 소개한 최초 인물로 지목하는 사례가 많다(岩猿敏生, 2007, 150; 宮地正人, 2005, 264; 加藤一夫 등, 2005, 18; 奥泉和久, 2009, 3).

그러나 정당한 인식 내지 주장이 아니다. 『서양사정』 전에도 외국 도서관을 번역·소개한 자료가 다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7세기 초부

터 약 200년간 쇄국정책을 고수하였으나, 에도 막부 때 무역과 종교를 분리한 전략을 구사한 네덜란드(화란)에 한해 교역을 허용하여 외국 문물을 입수하는 창구로 삼았다. 당시 서양 도서관을 일본에 처음 소개한 자료는 1814년 모도끼(本木正榮) 등이 편집한 일본 최초의 영화사전(英和辭典)인 『암액리아어림대성』(語厄利亞語林大成)인데, 도서관을 서방(書房)으로 번역하였다. 1851년에는 무사 겸 네덜란드학자 미즈쿠리가 『팔광통지』에서 대영박물관도서관과 보드레이안도서관을 공공서고(公共書庫)로, 1860년 미국 선교사 위리철(Way)의 『지구설략』(地球說略, 전 3권)에 훈독을 부기한 독일여행 부분에서는 장서실(藏書室)로, 동년 관관잡지 『옥석지림』(玉石志林, 전 4권) 중 제4권 프랭클린 약전(Benjamin Franklin's Autobiography)에서는 “1731년 프랭클린이 대어부지 내에 공공서고를 건립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1860년 미국사절단으로 참가한 후쿠자와가 귀국할 때 구입한 청국인 자경(子卿)의 『화영통어』(華英通語, 1849년)를 번역한 영어교재 『증정화영통어』(增訂華英通語)는 도서관을 서적관(ライブレリ)과 서물장(書物藏, ショモツグラ)으로(福澤諭吉, 1958, 167), 히다카(日高爲善)의 『미행일지』(米行日誌)는 서물고(書物庫)로, 모리다(森田岡太郎)의 『아행일기』(亞行日記)는 서적관으로 번역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 19세기-20세기 초 일본의 사전, 여행기, 지리지, 잡지, 연보, 목록, 법령 등에서 서양 도서관을 번역·소개한 명칭을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따라서 영향력 측면에서 미미하고 주목받지 못했을지라도 『서양사정』에 앞서 외국 도서관을 소개한 문헌이

<표 1> 일본에서 도서관 관련 출처와 명칭의 변용

연도	서명(저자, 편자, 역자, 권호)	명칭
1814	諸厄利亞語林大成(本木正榮 等編)	書房
1851	八紘通誌, 初編(箕作阮甫)	公共書庫
	地球說略(Way, R.Q. 箕作阮甫 訓点)	藏書室
	官板 玉石志林(제4권, 箕作阮甫)	公共書庫
1860	增訂華英通語(子卿, 諭吉福澤 譯)	書籍館(라이브리), 書物藏(シヨモツグラ)
	米行日誌(日高爲善)	書物庫
	亞行日記(森田岡太郎)	書籍館
1861	石橋政方(卷一)	書室
1862	英和對譯袖珍辭書(堀達之助)	書物ヲ集メ置ク所(서물을 수집·배치하는 장소)
	尾虹歐行漫錄(市川渡)	円ノ室たる書藏(大英博物館図書部)
1866	西洋事情(諭吉福澤, 제1권)	文庫(ビブリオテーキ)
1871	佛和辭典(好樹堂 譯)	書庫(Bibliothèque)
	西航記(諭吉福澤)	書庫, 藏書庫
1872	新聞雜誌(제45호)	書籍院
	德川幕府(文部省 學問所 昌平覺)	書籍館으로 개칭(1875년 동경서적관의 전신)
	英和字彙·附音插圖(柴田昌吉·子安峻 編)	書房, 書庫
1873	獨和字典(松田爲常 의)	Bibliothek을 書籍, 文庫로 번역
	日本帝國文部省年報(제1호)	書籍館 (제4호 공립서적관)
	京都集書院 개관	集書院(후신 1898년 개관한 京都府立図書館)
1875	東京開成學校文庫書目·英書之部	文庫
1876	監督雜報(제12호)	書籍館
	東京新繁昌記(服部撫松)	書肆
1877	東京書籍館 동경부로 이관	東京府書籍館으로 개칭
	東京大學法理文學部図書館 개설	図書館規則 제정
1878	東京高等師範學校圖書館 개관	筑波大學附屬図書館의 전신
1878	教育雜誌 제68호(1878. 6.3)	書籍館(권말 서적관일람표 수록) : 97호(1879.5.15) 公立書籍館
1879	教育令(제1조)	書籍館(최초 법적 용어)
1880	東京図書館 개관	서적관을 도서관으로 개칭(통칭 上野図書館)
1884	東京図書館洋書目錄 발간	영문: Catalogue of Tokio Dzushokwan
1886	和英英和語林集成(Hepburn, J.C. 3권)	Dzushokwan·Toshokwan(public library), 서적관(Shoseki library)
1887	文部省官制(普通學務局所掌事務) 개정	図書館
1888	和譯字彙: ウェブスター氏新刊大辭書	書房, 書庫, 書籍館
1889	東京図書館官制(칙령 제21호) 공포(3. 2)	図書館
1889-91	言海(大槻文彦)	図書館(書籍ヲ集メ置キテ人ノ覽ルニ供スル所)
1892	圖書館管理法(西村竹間 編) 간행	圖書館
1893	文部省年報	書籍館을 図書館으로 변경
	佛和字彙(中江篤介, 野村泰亨 共譯)	典籍類聚, 書架, 文庫
1896	日本新報(8.22-28) 古城貞吉의古巴島事情'	쿠바의 図書館 소개(3회 등장)
1897	帝國図書館官制 공포	東京図書館을 帝國図書館으로 개칭
1898	京都附立圖書館 설립	圖書館
1899	図書館令(칙령 제429호) 공포	図書館
	秋田縣立秋田図書館 設立(11월 개관)	図書館
1900	図書館管理法(文部省) 발간	칙령 해설
1904	佛和大辭典(Lemarchal, J.M. 편역)	Bibliothèque를 圖書館으로 번역
1906	和仏辭書(織田信義 의)	書籍館(Bibliothèque imperiale), 図書館(Bibliothèque)
1908	日本文庫協會(1892년 결성)	日本図書館協會로 개칭

다수 있기 때문에 후쿠자와의 최초 소개설은 온당하지 않다.

요컨대 고대 일본에서 도서와 문서 등 기록물을 수집·보존한 시설명의 원조는 율령제 하의 도서료다. 그 후 문고(文庫), 예정(芸亭), 예각(芸閣), 문전(文殿), 문창(文倉), 문장(文藏), 서고(書庫), 서부(書府), 서창(書倉), 서전(書殿), 서루(書樓), 비각(秘閣), 보장(寶藏), 경장(經藏), 경고(經庫), 경루(經樓)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다. 메이지 유신 초중기 자료에도 서방, 서고, 문고, 장서실, 장서고, 서적원, 서적고, 서적장, 서적관, 집서원 등이 혼용되었다. 1872년 문부성이 최초 관립 도서관인 서적관을 개관한 후 1873년 「일본제국문부성연보」(日本帝國文部省年報) 제1호와 1876년 「감독잡보」(監督雜報) 제12호에 공식 용어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1877년에는 동양 최초로 시설명에 도서관 명칭을 부여한 동경대학 법리문학부도서관(東京大學法理文學部圖書館)이 설치되고 「도서관규칙」(圖書館規則)이 제정되었으며, 1878년 동경고등사범학교도서관(東京高等師範學校圖書館)이 개관하였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는 문고, 집서원, 도서실, 서적종랍소, 서적실, 서적관 등이 혼용되는 가운데, 1879년 공포된 「교육령」(教育令) 제1조에서 서적관이 법적 용어로 규정됨으로써 많은 서고와 문고 등이 서적관으로 개칭되었다. 1880년 동경서적관의 동경도서관으로의 개칭, 1884년 「동경도서관양서목록」 발간, 1886년 「화영영화어립집성」(和英英和語林集成)에서 도서관(Dzushokwan: Toshokwan) 용어의 등장, 1887년 문부성관제 개정에서의 도서관 표기, 1889년 동양 최초 도서관 법령인 「동경도서관

관계」 공포 등을 계기로 도서관이란 용어가 확산되었다. 1890년대는 도서관이 통일된 명칭으로 사용되거나 일반화됨에 따라(日本圖書館協會, 2005, 31; 岩猿敏生, 2007, 151-152) 1899년 「도서관령」(칙령 제429호)이 공포되었다. 이어 한자문화권인 중국(圖書館), 대만(圖書館), 한국(도서관), 베트남(đồ thư quán, 圖書館)에도 이입되었다. 그럼에도 메이지 중기에 조여진 화제한어인 도서관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19세기 관련 자료의 집요한 추적과 논증이 계속되어야 한다.

3. 중국에서 도서관 명칭의 변용과 쟁점

3.1 도서관 발전과 명칭의 변용

중국의 장서문화사는 천년을 상회한다. 고대 중국에서 왕조의 기록과 문서, 전적과 도서 등을 집적한 시설은 통칭 장서루(藏書樓) 또는 장서처(藏書處)다. 관부(官府)와 사가(私家)를 불문하고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누각을 말한다. 그 유형은 건립주체에 따라 왕조·왕실의 관부장서루(官府藏書樓), 도교·유교·불교 등 종교시설의 사관장서루(寺觀藏書樓), 교육시설의 서원장서루(書院藏書樓), 정치인·문인·학자 등의 사가장서루(私家藏書樓)로 대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왕조 관서고(官書庫)와 사가장서루가 대표적이다.

3.1.1 고대 왕조의 관서고(官書庫)

최초의 연대기 역사서 「춘추좌씨전」(春秋左

氏傳)에 따르면 고대 왕조의 기록물 수집·보존은 주대(周代, BC 1100-256년)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왕실과 관부가 기록물 및 문서를 집적한 시설명에 대해서는 천부(天府), 맹부(盟府), 수장실(守藏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⁷⁾ 그럼에도 서주(西周) 왕실이 맹부를 설치하여 주로 공적 기록, 왕실 계약문서, 도서 등을 보존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전한(前漢, BC 202-AD 8년) 사마천의 『사기』(史記)⁸⁾는 춘추전국시대(BC 770-221년) 도가를 창시한 노자(老子, BC 571-471년)를 수장실의 사(史)로 기록하고 있다. '사'는 수장실을 전담하는 관직이다. 이를 근거로 대개 노자를 최초 도서관장으로 간주하지만 수장실이 문물관과 박물관 기능도 겸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주대의 맹부는 도서관의 원시적 형태로 왕실문고, 기록보존소, 장서처에 해당하지만 전설에 머물고 있다.

최초 통일왕조 진대(秦代 BC221-207년)에 이은 두 번째 통일왕조인 한대(漢代, BC 202-AD 220년)에는 관부장서의 흔적이 명확하다. 관서고의 왕조별 명칭은 한대의 난대(蘭台)·기린각(麒麟閣)·석거각(石渠閣)·천록각(天祿閣)·석실각(石室閣)·연각(延閣)·비부(秘府), 진대(晉代 266-420년)의 비각(秘閣)·동관(東觀)·인수각(仁壽閣), 남북조(420-589년)의 총명관(總明館)·학사관(學士館)·문덕전(文德殿)·인수각(仁壽閣)·문림각(文林閣), 수대(581-619년)의 비각(秘閣)·동도

수문전(東都修文殿)·동도관문전(東都觀文殿), 당대(620-907년)의 숭문원(崇文院)·홍문관·문덕전·사고(四庫)·십이고(十二庫), 송대(962-1279년)의 삼관(三館: 史館, 昭文館, 集賢書院), 비각·존경각(尊經閣)·용도각(龍圖閣)·천장각(天章閣) 등, 명대(1369-1644년)의 한림원(翰林院)·문연각(文淵閣), 청대(1645-1912년)의 사고칠각(四庫七閣) 등으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 왕조를 대표하는 관서고는 청조 37년(1772년) 시작하여 1781년 완성한 『사고전서』(四庫全書) 수장고인 칠각(七閣)이다. 1772년 청조 건륭제(乾隆帝)는 역대 왕조의 전적을 총서로 엮는 대규모 편찬사업을 계획하고 지방행정구역인 성(18개)과 현(1,281개)에 천하의 전적을 수집하도록 칙령을 내리고 편찬을 담당할 사고전서관을 설치하였다. 수집된 책(궁중 장서, 지방행정기관이 수집한 책, 민간이 헌상한 책 등)은 총재 우민중(于敏中)과 총찬관 기윤(紀昀)을 비롯한 학자 360명과 필사생 3,800여명이 편찬하였다. 건륭제는 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만주족을 경멸한 내용이 수록된 2,400여종을 파괴하였고, 400-500종은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를 두고 '청조판 분서갱유' 내지 '최악의 문단 범죄'라는 비판과 반론이 혼재한다. 고대부터 청조까지의 10,680종을 경사자집(經史子集)으로 분류하여 1782년 해제·편찬한 사고전서는 총 3,462종(79,338권), 약 97,700만자로 동양사상의 기념비적 총서, 위대한 지

7) 학계는 천부(天府)를 선대 왕실기록물의 포괄적인 아카이브, 맹부(盟府)를 주왕조 특수기록관, 수장실을 주왕조 대사부가 도관, 맹서, 족보, 계약서 등을 수집·보존한 특별서고(통상 원부는 천부에 은밀하게 보존하고 사본은 대사부 서고(국립공문서관)에 보존)로 간주하고 있다.

8) 老子“周守藏室之史也”。這個“守藏室”，就是藏書之所，“史”，就是專門管理圖書的官職。

적 성과로 회자된다. 초간본은 자금성(紫禁城)에 소장하고, 1792년까지 6질을 추가한 정본을 전국 7각에 보존하였다. 궁중 문연각(文淵閣), 원명원(圓明園) 문원각(文源閣), 열하(熱河) 피서산장(避暑山莊) 문진각(文津閣), 심양고궁(沈陽故宮) 문소각(文溯閣)이 내정사각(內廷四閣, 또는 北四閣)이고, 양주 대관당(大觀堂) 문화각(文匯閣), 진강 금산사(金山寺) 문종각(文宗閣), 항주 서호고산 성인사(聖因寺) 문란각(文瀾閣)이 절강삼각(浙江三閣, 또는 南三閣)이다. 북사각 중 문진각·문연각·문소각과 남삼각 중 문란각이 왕실의 4대 사각이다. 현재 문진각 사고는 북경도서관, 문연각은 대만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문소각은 감숙성도서관(甘肅省圖書館), 문란각은 절강성도서관(浙江省圖書館)에 보존되어 있다.

3.1.2 중세 사가의 장서루(藏書樓)

중국 최초로 사가 장서루(또는 장서처)를 조성한 인물은 춘추말기 유교의 시조이자 교육자·철학자였던 공자(孔子 BC 551-479년)다. 그는 유생 교육과 연구를 위해 문헌을 수집하여 사가장서를 만들었다. 다만,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장서루는 당송대 정치인, 학자, 문인, 장서가 등을 시작으로 명대에 본격화되고 청대에 개화하였다. 특히 오대십국(五代十國, 907-979년) 이래 장서가 총 739명 중 절반 이상이 청대의 인물이었다고(19), 동부 강소성(江蘇省)과 동남부 절강성(浙江省)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고대 장서루 명칭을 추적하면 당대는 재상이필(李泌, 722-789년)의 단거실(端居室), 시

인 위소보(韋少保, 751-814년)의 장서동(藏書洞), 시인 백거역(白居易, 772-846년)의 지북서고(池北書庫)가 대표적이다. 송대의 대규모 사가 장서루는 유학자 사마광(司馬光, 1019-1086년)의 독서당(讀書堂), 엽몽득(叶夢得, 1077-1148년)의 주서각(紬書閣), 시인 육유(陸游, 1125-1210년)의 서소(書巢), 시인 겸 장서가 우무(尤袤, 1127-1194년)의 수서당(遂書堂)이, 명대는 서법가 봉방(丰坊, 1492-1563년)의 만권루(万卷樓), 정치인 겸 장서가 범흠(范欽, 1506-1585년)의 천일각(天一閣), 장서가 모진(毛晉, 1599-1659년)의 급고각(汲古閣), 그리고 청대는 정치인 황거중(黃居中, 1629-1691년)의 천경당(千頃堂), 애서가 전증(錢曾, 1629-1701년)의 술고당(述古堂), 대신 겸 학자 서건학(徐乾學, 1631-1694년)의 전시루(伝是樓), 구소기(瞿紹基, 1772-1836년)의 철금동검루(鐵琴銅劍樓), 판본목록학자 엄원조(嚴元照, 1773-1817년)의 방초당(芳椒堂), 정치인 겸 경학자 완원(阮元, 1764-1849년)의 문선루(文選樓), 장서가 장금오(張金吾, 1787-1829년)의 애일정러(愛日精廬), 양이증(楊以增, 1787-1856년)의 해원각(海源閣), 명관 하희년(何熙年)의 환성장서루(皖省藏書樓), 상해 천주교의 서가회장서루(徐家匯藏書樓), 수장가 서수란(徐樹蘭, 1837-1902년)의 고월장서루(古越藏書樓), 금석학자 육심원(陸心源, 1838-1894년)의 벽송루(皕宋樓), 상해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의 함분루(涵芬樓, 1904년)가 유명하다. 청대의 4대 장서루(천일각, 고월장서루, 철금동검루, 해원각) 중 천일각·고월장서루와 서가회장서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천일각은 범함(范函)이 1561-1565년 절강성 영파시 월호 서남쪽에 건립한 현존 중국 최고 인 동시에 세계 3대 사가장서루의 하나다(國家圖書館, 2016, 4). 자신의 호를 붙여 동명초당(東明草堂)으로 지칭하다가 천일각으로 개칭하였고 장서는 7만여권(송·원대의 1급 166종, 2급 2,301종, 3급 5,735책을 포함한 22,360종)에 달하였다. 역대 과거기록과 지방지가 가장 많으며 명대 과거기록은 80%를, 1583년(萬曆 11년) 이전의 명대 등과록(登科錄)은 거의 완전하게 수집하였는데 총 370여종 중 90% 이상이 고본(孤本)이다. 범함은 장서문화의 양면성인 소장(收藏)과 이용(利用)을 증시하여 벌레, 습기, 화재, 유실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장서관리규칙인 '代不分書 書不出閣'(장서는 자손 대대로 나누어 가지지 못하고, 장서각을 벗어나지 못한다)과 '以水制火 火不入閣'(물로 화재를 진압하고 불이 장서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을 통해 개인 소유나 외부 유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는 고유한 장서문화 형성 및 발전에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전통제 도서수집령에 따른 헌서(643종), 1842년 아편전쟁과 영국군 약탈, 1850-1864년 태평청국 난으로 후손들이 피신한 후 유민들의 무단유출 등으로 많이 소실되어 현재 13,000권에 불과하고 공공도서관으로 바뀌었다. 1982년 국무원(國務院)은 천일각을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하였다.

다음으로 1842년 상해에 도착한 예수회 선교사 3명(Gotteland, Esteve, Brueyre)이 1847년 선교를 위한 중국어 학습 및 자료보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서가구(徐匯區)에 설립한 서가회 장서루(徐家匯藏書樓 Bibliotheca Zi-ka-wei,

일명 天主堂藏書樓)는 상해 최초 근대도서관이다. 처음에는 교회 복단의 선교사 방 3개로 운영하다가 1860년 조가빈(肇嘉濱) 운하 동쪽의 큰 건물로 이전하였고, 다시 공간이 부족하자 1897년 은행나무 고목으로 둘러싸인 대지에 유럽풍 2층 12개 방을 확보하였다. 1층에는 중국서, 2층에는 서양서를 배치하였는데 전성기에는 10만종 20만권(중국서 12만권, 서양서 8만권)을 수장한 대형 도서관이었다(King, 1997, 456-469). 1956년 상해도서관에 편입된 후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902년 서수관의 고월장서루는 청대 말기를 대표하는 사가장서루다. 그는 고향인 절강성 소흥시 대통학당 인접지에 부지 1.6 에이커(6,475㎡)를 매입하고 은화 32,960량을 투입하여 건립한 후 장서 7만권 이상을 수장하였다. 서양 계몽문화 및 개혁주의를 수용하고,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여 도서관규정을 만들고 1904년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현대 도서관의 태동과 사가장서의 공립도서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932년 소흥현립도서관(紹興縣立圖書館)으로 재편되었다.

요컨대 고대 중국은 많은 전적을 생산·보존한 지식문화의 종주국이었다. 역대 왕조는 문서와 귀중한 전적을 수집·보존하는 관서고를 설치하였고, 많은 제상·관리·문인·학자도 장서루를 건립하였다. 그 명칭은 고유명사 뒤에 부기한 '실(室), 각(閣), 부(府), 관(觀), 원(院), 전(殿), 고(庫), 당(堂), 루(樓), 정(亭), 제(齋) 등이었다. 이를 대표하는 수장고 명칭이 관서고 내지 장서루인데, 대다수는 보존에 방점을 두었을 뿐 대중을 위한 개방에는 인색하였다.

3.1.3 근대의 장서루(藏書樓)와 장서원(藏書院)

17세기 중반 중국은 청왕조 3대 군주(강희제, 옹정제, 건륭제)로 이어지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정 관료의 부패, 국권이 침탈된 한족의 저항, 유럽 열강의 침략 등으로 시세동점(西勢東漸)이 시작되었다. 소위 중국전통을 고수하면서 서양학문을 수용하는 중체서용(中體西用) 시대가 개막됨으로써 근대 도서관 태동의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를 선도한 주역은 서양 선교사와 중국 개화파 지식인들이다.

먼저 중국에 체류한 선교사들은 서양학교 설립, 선진문물 보급, 한역 세계지도와 지리서 등 서학(西學)과 신문명을 전파하였다. 특히 이탈리아 선교사 알레니(Aleni)의 유럽 인문지리서 『직방외기』(職方外紀, 1623년)와 『서학범』(西學凡, 1623년), 독일 선교사 파버(Faber)의 『덕국학교논략』(德國學校論略, 1873년), 미국 선교사 마틴(Martin)의 『서학고략』(西學考略, 1883년), 영국 웨일스의 침례교 선교사 리처드(Richard)의 『칠국흥학비요』(七國興學備要, 1898년) 등 한역 서학서는 서양 도서관 사상 및 운영의 유입과 새로운 도서관·문화시스템 구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청조 후기의 개혁파 사상가, 정치평론가, 언론인 등은 저술을 통해 서양 도서관을 소개하고 봉건적 도서관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최초 지리서로 유럽 6개국, 미국 18개주, 아시아, 아프리카의 장서루를 번역·소개한 임칙서(林則徐)의 『사주지』(四洲志, 1841년), 서양 장서루를 소개한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 1841년)에 이어 전기 개화파를 주도한 왕도(王韜)는 1867년 선교사 레그(Legge)

의 초청을 받아 중국 문인 최초로 유럽 박람회를 견학하였고, 영국에 2년간 머물면서 그와 함께 중국 고전을 번역하였으며, 프랑스 등을 여행하였다. 그 후 유럽 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견문록이 『만유수록』(漫遊隨泉, 1883년)이다. 대량 생산용 공장, 신속한 운송수단, 각종 사회제도, 대학, 박물관(博物院), 장서원(藏書院) 등을 상술하였고, 영국 박물관을 기술한 부분에서 “도시에는 장서원이 무수히 많은데 모두 관람을 허용한다. . . . 중국 경서, 역사서, 제자서와 문집도 두루 비치되어 있다. 시민은 빈부를 불문하고 들어가 독서하는 인원이 하루 수백 명에 달한다”고 기술하였다(王韜, 1985, 100-102; 鐘叔河主, 1985, 102). 더 주목해야 할 인물은 광동성 매관상인 출신으로 개혁주의자이자 사상가인 정관응(鄭觀應)이다. 그가 『역언』(易言)을 증보해 총 87편(정문 57편, 부록 30편)으로 구성한 『성세위언』(盛世危言, 1894-1900년)은 국가개혁과 부흥책략을 제시한 서학담론의 완결이자 집단지성을 대표한다. 입헌제·과거제·관리임용제 개혁, 중상정책, 서학제 도입, 국제법 기반의 외교 중시, 사회보장제도, 지방·향촌 질서재건을 통한 사회적 안정, 기반시설 건설과 산업화 등 개혁적 담론이 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제7편(藏書)에서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기타 국가의 장서원(藏書院) 규모 및 관리방법을 상술하였는데, 골자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鄭觀應, 1996, 86-87).

서양 각국에는 장서원(藏書院)과 박물관(博物院)이 있고, 특히 영국은 서적이 많았으며, 한대와 당대 이후의 왕조별 서적을 구비하고 있다.

무릇 국가마다 신간서가 있을 때는 2부를 도서관에 보내 소장하도록 한다. 국가계획 및 민생에 유익한 도서는 조정에서 반드시 큰 상을 내리는 동시에 몇 년간 단독 출판권을 준다. 함풍 4년(1854년) 원중(院中)에 큰 건물을 세워 독서당으로 호칭하였는데, 3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중앙에 책상과 필묵을 놓았다. 독서 희망자는 먼저 현지 신사(紳士)의 추천서를 받아 성명과 주소를 기입하여 장서원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열람증을 발급받아 장서원에서 도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 . . 열람한 후에는 반납해야 하고, 휴대한 채 밖으로 유출하거나 훼손·낙서를 금하고 있다. 만약 도서를 손실하면 책임을 물어 배상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세위언」 등은 1898년 백일유신(百日維新)을 계기로 유신파뿐만 아니라 개혁파에게 중요한 논거로 작용하였다. 후기 개혁파를 주도한 양계초는 「신대륙유기」(新大陸遊記, 1904년)에서 미국 도서관을 소개하였고, 새로운 도서관 건립을 주장하였으며, 「서학서목표」(西學書目表)를 편찬하였다(宋建成, 2014). 1896년에는 「시무보」 창간호에서 '서양

국가는 학교, 신문관, 서적관을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고 피력하였고, 이를 확장하여 제13호에서 “금일의 활성화 전략은 먼저 인재를 육성해야 하고, 인재를 교육하려면 새로운 학술이 필요하며, 새로운 학술은 반드시 과거제도를 개혁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 . . . 이 3가지가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강유위(康有爲)는 「구주십일국유기」(歐洲十一國遊記, 1906년)를 저술하고 「만목초당서장」(萬木草堂書藏)과 「강학회서장」(強學會書藏)을 설립하였으며, 「일본서목지」(日本書目志)도 편찬하였다. 이처럼 19세기말 강유위, 양계초 등은 학습도서관인 서장을 설치하여 일반에게 개방하였고, 이를 계기로 1900년대 초반 일반에 공개하는 장서루 설립은 사회적 풍조가 되었다(張几, 2011, 71-72).

요컨대 서양 선교사들의 서학 및 신문명 전파, 한역 세계지도와 지리서 등 배포, 도서관의 중국식 명칭인 장서루 건립에 이어 개혁파들의 주창과 논리는 봉건적 장서루 및 장서원을 개선하고 명칭을 도서관으로 대체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환언하면 양대 주역들은 중국의 전통적 도서관을 현대적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左玉河, 2007, 27).

3.2 도서관 명칭의 출현과 쟁점

동양의 맹주로 군림한 건륭제 청국도 19세기 중반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분기점은 영국과 대립한 아편전쟁(阿片戰爭, 1840-1860년)이었다. 청조 완패로 중화사상은 무너지고, 서세동점 조류 속에서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그 와중에 19세기말 귀국한 영미 유학과 및 개혁파 주도로 서양 신문물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일본과의 활발한 지적 교류를 통해 신교육제도를 수용하면서 장서루 내지 장서원을 대체한 용어로 도서관이 이입되었다.

그렇다면 도서관이란 명칭은 언제 도입하였는가. 1993년판 『중국대백과사전』(中國大百科全書)는 19세기말로 기록하고 있다. 근대 계몽사상가로 추앙받는 양계초가 조어했다는 입장, 장원제(張元濟)가 북경에 설립한 통예학당도서관에서 유래하였다는 주장, 외교관 부운룡의 『유력일본도경여기, 30권』가 최초라는 견해 등 다양하다(張麗華, 2009, 47-69).

먼저 조어설은 1896년 8월 26-28일 『일본신보』(日本新報)에 한어학자 고조가 연재한 ‘古巴島事情’에서 출발한다. 그는 쿠바의 공공시설로 ‘여학교, 음악학교, 농예학교, 체육학교, 자선병원, 가난한 농민보육원, 박물관, 도서관 등이 있다’고 소개하였고, 그 일부를 발췌하여 중국어로 번역한 고조의 기사를 동년 9월 27일 양계초가 상해 『시무보』 제6권 번역란에 ‘古巴島述略’로 게재하였다. 이어 일본 최초의 종합잡지 『태양』(太陽) 제9호에 번역·게재된 것을 1899년 6월 양계초가 『청의보』(淸議報) 제17책에 ‘論圖書館爲開進文化一大機關’이라는 제하로 게재하였는데, “세인들은 학교가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만 문화에 해당하는 주요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 . 공공도서관 설립이 신문화를 개척하는데 유일하게 좋다. 신문화를 열고 싶다면 도서관보다 더 큰 효과는 없다. . . 유럽과 미국에는 도서관이 아주 많다. 나는 도서관이 학교를 보완할 수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주장하였다(梁啓超,

1899, 14-16). 이처럼 중국 신문에 도서관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점(吳晞, 1996, 7)에 주목한 중일 학자들이 양계초가 조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조 말기 상해에 상무인서관을 설립한 교육가·문헌학자·유신파 장원제는 1897년 북경에 사립 서학당인 통예학당을 건립하고 『통예학당장정』(通藝學堂章程, 13장 61개조)과 세칙인 『통예학당도서관장정』(通藝學堂圖書館章程, 12개조)을 제정하였다. 학칙인 전자는 제3장 제2조에서 구비시설의 하나로 도서관을 규정하였고, 후자는 목적, 장서구축, 도서분류, 인력배치, 대출방법, 도서배상, 대출책수와 시간, 도서기부 등을 규정하였다. 장정은 중국 최초의 도서관규칙이고 통예학당도서관은 최초로 도서관 명칭을 부여한 사례라는 측면에서 기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89년 부운룡의 『유력일본도경여기』 전편 상하권에 도서관이 등장한다. 그 중 전편 상권에서 동경대학을 방문한 상황을 “대학장 와타나베(渡辺太一), 사무원 나가이(永井久一郎)가 대학을 안내하였다. . . 도서관에 중국어 원본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고, 전편 하권의 도서관 여행에서는 “절강도서관이 『유력도경여기』(游歷圖經余紀, 1889년) 인쇄본을 소장하고 있었다”는 기록을 들어 최초로 주장한다.

그러나 서양 도서관을 언급한 중국 자료를 추적·집계한 <표 2>를 보면 17세기 초부터 많은 문헌이 서원, 서관, 서루, 장서루, 서고, 서적관 등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이란 단어는 류정담(劉正澗) 등이 1884년 편찬한 『한어외래사사전』(漢語外來詞詞典)에 등장한다. 따라서 간행연도의 시차를 비교하면 류정담 등의 『한어외래사사전』은 양계초 조어설보다 12

〈표 2〉 중국의 도서관 관련 출처와 명칭의 변용

연도	출처(서명, 저자, 출판사)	명칭
1623	職方外紀：西學凡(Aleni, G.)	書堂閣, 書院
1841	英吉利紀略(陳逢衡)：四洲志(林則徐)	書館, 大書館
1842	海國圖志(魏源)	書樓, 書館, 大書館
1847	徐家匯天主堂藏書樓(這里便) 설립	藏書樓(Bibliotheca)
1848	瀛環志略(徐繼畲)	大書院, 藏書樓
1849	上海書會(Shanghai Book Club, 중국명 工部局圖書館) 설립	洋文書院으로 개칭(Shanghai Library)
1853	映咭喇紀略(陳逢衡, 荒木憲 訓点)	大書館
1854	地理全志(Muirhead, Willian)：勝村治右衛門)	大書院
1856	地球說略(緯理哲)	藏書之室
1867	漫遊隨錄(王韜)	藏書大庫, 書庫, 藏書之庫
1868	歐美環遊記(張德舞)	書樓(미국 대학도서관 지칭)
1876	環遊地球新錄(李圭)	書庫(옥스포드 대학도서관 지칭)
1877	申報(3, 22)	洋文書院
1879-1882	扶桑游記(如王韜, 1879)：日本記游(李筱圃, 1880)：日本國志(黃遵憲, 1882)	書籍館
1883	訂增英華字典(Lobscheid, Wilhelm 저, 井上哲次郎 增訂) 漫遊隨泉(王韜)	書房, 文房, 書府, 書廳, 書樓, 藏書館 藏書院
1884-1889	漢語外來詞詞典(劉正琰, 1884)：游歷日本圖經余記(傅云龍, 1889)	圖書館
1894	教育世界(제62호) 기사 盛世危言：藏書(鄭觀應)	擬設簡便圖書館說 藏書院, 博物院
1895	時務報(창간호, 梁啓超)	書籍館
1896	時務報(제16호) 梁啓超 '古巴島述略'계제	圖書館 등장(古城貞吉 기사 발췌·한역)
1898	戊戌政變記(梁啓超)	開大圖書館(強學會 5대 업무의 하나)
1899	清議報(제17책, 6월, 14-16면) 번역 기사(원전: 일본 太陽)	論圖書館與開進文化一大機關
1902	扶桑兩月記(羅振玉) 東遊接錄(日本教育視察報告書, 吳汝繪)	일본 圖書館 소개 圖書館(10회 이상 등장)

년, 장원제 「통예학당장정」보다 13년 앞선다. 일본에서 1880년 동경서적관이 동경도서관으로 개칭되는 등 새로운 명칭이 사용될 때 중국인의 일본 견문록과 일기 등에 도서관이 기록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부운룡의 「유력일본도경여기」도 일본에서 발간된 후 1889년 5월 귀국하여 청왕조에 직접 보고하였기 때문에(沈國威, 2010, 224) 고조가 부운룡의 여행기를 읽고 1896년 「시무보」에 도서관이란 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고대 및 근대 중국에서는 부(府), 실(室), 각(閣), 관(觀), 전(殿), 당(堂), 제(齋),

장(藏), 루(樓), 원(院) 등이 도서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고, 중장경용(重藏輕用) 또는 장이불용(藏而不用)을 중시하였다(左玉河, 2007, 24-40). 이어 명조에서 청조로의 교체기와 그 후 중국에 진출한 서양 선교사들이 포교와 함께 사대부에 서학 및 문물을 번역·소개하는 한편, 구미와 일본을 견문한 지식층이 신문물을 기록한 지리지, 여행기, 일기 등에서 서양 도서관을 서당각, 서원, 서관, 서루, 서고, 장서설, 서적관 등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중국 문헌은 1884년 류정담의 「한어외래사사전」이고, 이어

부운룡의 『유력일본도경여기』, 잡지 『교육세계』와 『시무보』 등으로 이어졌다. 부언하면 1880년 일본이 동경서적관을 동경도서관으로 개칭하던 시점에 일본과 교류하던 중국인 문헌에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다. 그 여파로 1894년 상해 세인트존스대학이 도서관을 설치하였고, 1903년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은 장서루를 도서관으로 개칭하였으며, 동년 중국 최초로 시설에 도서관 명칭을 부여한 문화대학 도서관(文華大學圖書館)이 등장하였다. 이어 1904년 호북성도서관(湖北省圖書館)과 호남성도서관교육박물관(湖南圖書館教育博物館), 복건도서관(福建圖書館)이 설립되고 강소, 산둥, 산시, 절강, 하북 등에도 등장하였다. 1909년에는 『경사급각성도서관통행장정』(京師及各省圖書館通行章程)을 제정·공포하여 공공도서관 설립과 발전을 장려함에 따라 경사도서관(1909년), 남경국립도서관(1910년), 칭화대학도서관(1911년) 등이 건립되었고 말기에는 현대식 공공도서관이 18개로 증가하였다(汪朝光, 1993).

그럼에도 중국에서는 근대 잡지 및 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20세기 초반 도서관이 서장, 장서루, 장서원을 대체하였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翟桂榮, 2020, 119-126). 또한 장금량(張錦郎, 1984, 70)은 『시무보』에 도서관이 등장한 것을 계기로 중국에 전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중국 『도서정보사전』(圖書情報詞典, 1990)을 비롯한 많은 저술, 언론, 웹사이트, 블로그는 『시무보』 기사를 최초로 간주하고 있다. 고유한 명칭인 장서루나 장서원 등이 서구 열강과의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경제적 불황, 새로운 장서개념 및 장서루 출현, 청대 후기 도

서관법제 공포·시행을 계기로 현대 도서관으로 변모한 것(徐凌志, 卓腮嬌, 2006, 107-110)은 분명하지만, 도서관이란 용어가 중국에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1896년이 아니라 1884년이다.

4. 요약 및 결론

도서관은 메이지 중기의 화제한어로 19세기 말 한자권 국가에 도입되었다. 일본과 중국에서 양 도서관을 소개한 사전, 저서, 번역서, 논문, 신문기사 등을 추적하여 최초로 소개한 인물과 문헌에 대한 오류를 논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대 일본에서 도서관 전사(前史)의 최초 시설명은 도서관이다. 그 후 문고, 예정, 예각, 문전, 문창, 서고, 서부, 비각, 보장, 경장, 경고, 경루 등이 혼용되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 문고, 장서고, 서적원, 서적고, 서적관, 집서원 등으로 수렴되었다. 그리고 서양 도서관을 최초로 소개한 문헌은 1814년 모도끼의 『암액리아어림대성』이다. 이어 1851년 미즈쿠리의 『팔굉통지』와 1860년 『지구설략』 및 『옥석지림』, 역시 1860년 히다카의 『미행일지』와 모리다의 『아행일기』 등에도 서양 도서관이 다양한 용어로 번역·소개되었다. 1872년 문부성이 개관한 서적관은 1873년 『일본제국문부성연보』와 『감독잡보』에 공식 용어로 표기되었고, 1877년 일본 최초로 도서관 명칭을 부여한 동경대학법리문학부도서관 설치, 1880년 동경서적관의 동경도서관으로의 개칭, 1886년 『화영영화어림집성』에 도서관 용어의 등장, 1889년 『동경도서관관제』 공포 등을 계기로 확산되었고 1899년 『도서관령』 공포로 법적 용어가 되었다. 따라서

1866년 후쿠자와의 『서양사정』이 최초라는 주장은 오류다.

다음으로 고대 중국에서 기록물을 수집·보존한 최초 시설명은 서주 왕실의 맹부(盟府)다. 그 후 증장경용을 증시한 부, 실, 각, 관, 전, 당, 루, 원 등이 도서관을 지칭하였다. 명조에서 청조로 교체되는 시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서학 및 문물을 번역·소개하였는데, 그 최초는 1623년 알레니의 『직방외기』와 『서학범』이다. 이어 1841년 임칙서의 『사주지』와 위원의 『해국도지』, 1867년 왕도의 『만유수록』, 1868년 장덕무의 『구미환유기』, 1876년 이규의 『환유지구신록』, 1879년 여왕도의 『부상유기』, 1880 이소포의 『일본기유』, 1882년 황준헌의 『일본국지』, 1894년 정관웅의 『성세위언』 등에서 구미·일본의 도서관과 문고를 서원, 서관, 서루, 서고, 장서실, 서적관 등으로 표기하였다. 도서관은 1884년 류정담의 『한어외래사사전』에 처

음 등장하며, 1889년 부운룡의 『유력일본도경여기』, 1894년 『교육세계』와 1895년 『시무보』 등으로 이어졌다. 1880년 동경도서관으로의 개칭을 계기로 중국 문헌에 이입되었고, 1894년 상해에 세인트존스대학도서관이 설치되었으며, 1903년 경사대학당이 장서루를 도서관으로 개칭하였고, 동년 최초로 도서관 명칭을 부여한 문화대학도서관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1896년 양계초가 『시무보』 번역란에 게재한 기사가 중국에 이입된 최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요컨대 화제한어 도서관은 19세기말 한자문화권인 중국(圖書館), 대만(圖書館), 한국(도서관), 베트남(đồ thư quán, 圖書館)에 이입되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1901년 일본홍도회 부산지회가 설립한 도서관의 최초 명칭은 도서구락부, 독서구락부, 홍도도서실, 홍도도서관, 홍도문고, 부산도서관 중에서 어느 것인가. 후속연구를 통한 논증이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 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2005). 日本の植民地圖書館. 東京: 社會評論社.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2). 福澤諭吉著作集, 第1卷 西洋事情. 東京: 同出版會.
 顧焯青 (2019). 日語“圖書館”詞源考. 大學圖書館學報, 109-120.
 國家圖書館 (2016). 范氏天一閣藏書研究. 北京: 國家圖書館.
 宮地正人 (2005). ビジュアル・ワイド明治時代館. 東京: 小學館.
 今田洋三 (2009). 江戸の本屋さん. 東京: 平凡社.
 達也伊東 (2015). 近代日本公共図書館利用史の研究. 博士學位論文, 九州大學 教育學.
 大曾根 章介 (1983). 日本古典文學 第四卷: 近世小説. 東京: 明治書院.
 梁啓超 (1899). 論圖書館爲開進文化一大機關. 清議報, 17, 14-16.
 劉滿平 (2018). 漢語圖書館一詞來源小考. 圖書館雜誌, 37(2), 24-26.

- 裏田武夫, 小川剛 (1965). 明治・大正期公共図書館研究序説. 東京大學教育學部紀要, 8, 153-189.
- 福澤諭吉 (2005). 福澤諭吉全集, 第1卷. 東京: 卷岩波書店.
- 福澤諭吉 (1866). 西洋事情, 初編 卷之一. 東京: 尙古堂.
- 杉本 まゆ子 (2015). 宮内廳書陵部における古典籍資料: 保存と公開. 情報の科學と技術, 65(4), 164-168.
- 森本正和 (1999). 現代的視点から見た図書寮製紙の考察. 紙バ技協誌, 53(5), 66-73.
- 三浦太郎 (1998). 書籍館の誕生. 東京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 38, 393-401.
- 서남원 (2019). 근대시기 중국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발전에 대한 고찰. 中國史研究, 121, 139-163.
- 徐凌志, 卓腮嬌 (2006). 中國古代藏書樓向近代圖書館轉型原因探析. 江西社會科學, 9, 107-110.
- 宋建成 (2014). 圖書館學人物志. 臺北: 五南.
- 岩猿敏生 (2007). 日本図書館史概説. 東京: 日外アソシエーツ.
- 奥泉和久 編著 (2009). 近代日本公共図書館年表: 1867-2005.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吳晞 (1996). 從藏書樓到圖書館.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 王韜 (1985). 漫遊隨錄. 長沙: 岳麓書社.
- 汪朝光 (1993). 中國大百科全書.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禱理哲 著, 箕作阮甫 訓点 (1860). 地球說略. 東京: 老皂館.
- 伊東達也 (2013). 學制施行期の書籍館政策について: Free Public Librayとしての東京書籍館の成立をめぐる. 日本図書館情報學會誌, 59(4), 133-144.
- 日本図書館協會 (2005). 図書館ハンドブック. 제6판. 東京: 同協會.
- 張几 (2011). 中國の図書館の發展過程の歴史的考察. 情報學, 8(1), 69-74.
- 張錦郎 (1984). 中國圖書館事業論集. 台北: 臺灣學生書局.
- 張麗華 (2009). 近代新漢語「図書館」の中國語への移入と定着について. 關西大學中國文學會紀要, 30, 47-69.
- 長友千代治 (2002). 江戸時代の図書流通. 東京: 思文閣出版.
- 翟桂榮 (2020). 梁啓超的譯書思想對近代圖書館學翻譯之影響. 大學圖書館學報, 4, 119-126.
- 鄭觀應 (1996). 中國古代藏書與近代圖書館史料, 李希泌・張椒華 編. 北京: 中華書局.
- 鐘叔河 主編 (1985). 向世界叢書. 長沙: 岳麓書社.
- 左玉河 (2007). 從藏書樓到圖書館: 中國近代圖書館制度之建立. 史林, 4, 24-39.
- 竹林熊彦 (1943). 近世日本文庫史. 東京: 大雅堂.
- 總合仏教大辭典編集委員會 編 (1987). 總合佛教大辭典. 京都: 法藏館.
- 崔广社 (1994). 梁啓超與中國圖書館事業. 圖書與情報, 4, 39-40.
- 沈國威 (2010). 近代中日詞匯交流研究. 北京: 中華書局.
- 土佐秀里 (2019). 古代日本の蒐書と藏書. 國學院雜誌, 120(2), 19-3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u, Ki (2011). Historical perspective on development of libraries in China. *Journals of Informatics*, 8(1), 69-74.
- Cui, Guangshe (1994). Liang Qichao and Chinese library development. *Library and Information*, 4, 39-40.
- Fukuzawa, Ukichi (1866). *Seiyo Jijo(Things Western)*. Part One, Vol. 1. Tokyo: Shokodo.
- Fukuzawa, Ukichi (1958). *Collections of Fukuzawa Ukichi*. Vol. 1. Tokyo: Iwanami Shoten.
- Gu, Yeqing (2019). On the etymology of Japanese “Toshokan(図書館, Library)”. *Journal of Academic Library*, 9, 109-120.
- Ito, Tatsuya (2015). *Research on the History of Utilization of Public Library in Japan in Modern Times*. Doctoral dissertation, Kyushu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 Iwasaru, Toshio (2007). *The Outline of Japanese Library History*. Tokyo: Nichigai Associates.
- Japan Library Association (2005). *Librarian Handbook*. Tokyo: JAL.
- Kato, Kazuo, Kawata, Iko, & Tojo, Fuminor (2005). *Colonial Library of Japan*. Tokyo: Shakaihyoronsha.
- Keio University Press (2002). *Collected Works of Fukuzawa Yukichi*. Vol. 1: *Things Western*. Tokyo: KUP.
- King, Gail (1997). The Xujiahui(Zikawei) library of Shanghai. *Libraries & Culture*, 32(4), 456-469.
- Konda, Yozo (2009). *Bookstores of Edo Period*. Tokyo: Heibonsha.
- Liang, Qichao (1899). Discussing that the library is a major organization of culture. *Qing yi bao*, 17, 14-16.
- Liu, Manping (2018). A textual research of the origin of library in Chinese. *Library Journal*, 37(2), 24-26.
- Miura, Taro (1998). Creation of Shojaku-kwan. *Bulletin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Tokyo*, 38, 393-401.
- Miyachi, Masato (2005). *Visual Wide Meiji Jidai Kan*. Tokyo: Shogakukan.
- Morimoto, Masakazu (1999). Discussion on the papermaking carried out at Zushoryou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Japan TAPPI journal*, 53(5), 66-73.
- Nagatomo, Chiyoji (2002). *Book Distribution in the Edo Period*. Tokyo: Shibunkaku.
- National Central Library (2016). *Fan's Study on Tianyige Zangshu*. Peiking: NCL.
- Okuizumi, Kazuhisa (2009). *Chronology of Modern Japanese Public Libraries: 1867-2005*. Tokyo: Japan Library Association.

- Osoné, Shosuke (1983).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Vol. 4: Early Modern Novel*. Tokyo: Meijishoin.
- Seo, Weon-Nam (201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Chinese public libraries in modern times. *The Journal of Chinese Historical Researches*, 121, 139-163.
- Shin, Kokui (2010). *A Study on Modern Sino-Japanese Vocabulary Exchange*. Beijing: China Book Store.
- Sōgō Bukkyō Daijiten Henshū Inkaishi (1987). *Sōgō Bukkyō Daijiten*. Kyoto: Hōzōkan.
- Sugimoto, Mayuko (2015). The archives in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conservation and public access. *Th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5(4), 164-168.
- Sung, Chien-cheng (2014). *Characters in Library Science*. Taipei: Wu-Nan.
- Takebayashi, Kumahiko (1943). *History of Modern Japanese Library*. Tokyo: Taigado.
- Tosa, Hidesato (2019). A study of the collection and storage of books in ancient Japan. *The Journal of Kokugakuin University*, 120(2), 19-34.
- Urata, Takeo & Takeshi, Ogawa (1965). Historical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in Meiji Taisho periods. *Bulletin of the Faculty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Tokyo*, 8, 153-189.
- Wang, Tao (1985). *Jottings of Carefree Travel*. Changsha: Yuehlu Shushe.
- Wang, Zhu Jian (1993). *Encyclopedia of China*. Beijing: Encyclopedia of China Publishing House.
- Way, R.Q. (1860). *Brief Explanation of the Globe*. Gempo Mitsukuri Gunten. Tyoko: Rosokan.
- Wu, Xi (1996). *From Bibliotheca to Library*. Beijing: Catalogs & Documentations Publishing House.
- Xu, Lingzhi & Zhuo, Sai-jiao (2006).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the transformation from ancient Chinese library to modern library. *Xin Jiangxi Social Sciences*, 9, 107-110.
- Zhai, Guirong (2002). The influence of Liang Qichao's thoughts on translation of books on modern library science translation. *Journal of Academic Library*, 4, 119-126.
- Zhang, Jinlang (1984). *Essays on Chinese Libraries*. Taipei: Taiwan xuesheng shuju.
- Zhang, Li-hua (2009). The adoption of the Japanese-made kango Toshokan(Tushuguan) in modern Chinese. *The Kansai University Bulletin of Chinese Studies*, 30, 47-69.
- Zheng, Guanying (1996). *Book Collection in Ancient China and Historical Materials in Modern Library*. Li, Xibi & Zhang, Jiaohua, comps. Beijing: China Book Store.
- Zhong, Shuhe, comp. (1985). *From East to West*. Changsha: Yuelu shushe.
- Zuo, Yu He (2007). From collection house to library: the establishment of modern library system in China. *Historical Review*, 4, 24-39.